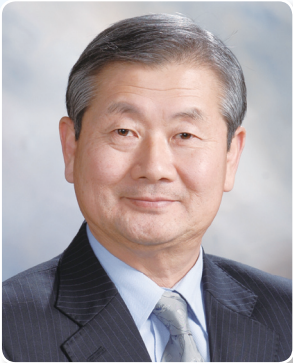


전문가 요청

윤리경영과 공익제보 문화



오 필 환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원장

질문 1

공익제보(내부고발)는 기업의 윤리경영에 어떻게 기여하나요?

공공기관이든 기업이든 간에 조직 내부에 깊숙이 숨어있는 비윤리적 행위는 외부의 감사나 일반적인 감시기관이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공익제보는 내부의 비리와 불법적 행위를 척결하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확실하다. 더욱이, 미국 기업윤리연구소의 연구결과를 보면, 자기가 일하는 기업이 좋은 곳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의 95%가 '비윤리적인 것을 보면 고발하겠다' 고 응답한 반면, 직장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64%만이 비윤리적 행위를 고발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애사심이 큰 사람일수록 공익제보 의욕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익제보의 가능성은 조직의 소통 가능성이며 생산성, 창의력, 경쟁력과 직결되는 순기능을 하게 된다.

질문 2

공익제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요?

첫째는, CEO나 조직 내 동료들의 개선의지가 제일 문제이다. 기업의 윤리경영은 부서장이나 CEO가 조직의 비리와 불법적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 없이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국가 전체적으로도 대통령의 확고한 부패 척결 의지와 강력한 실천력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 지도층의 개탄스러운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 사회가 맑아지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둘째는, 제도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도 공익제보자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끝까지 추적하여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보호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공익제보를 기피하게 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 여러 분야의 공익제보시스템은 본인의 인증절차가 매우 까다롭게 되어있고, 제보방법도 쉽지 않기 때문에 시도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도 제보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공익제보에 적극적일 수 있을 것이다.

동향 & 소식

:: 국 내

히든챔피언 선정 기업, 윤리성 검증 강화

히든챔피언*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윤리성 검증이 강화된다. 히든챔피언으로 위장한 부실기업이 각종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중소기업청은 수출입은행 등 6개 지원기관과 경제단체가 참여한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실무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히든챔피언 선정 기업들이 범법행위에 연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선정평가에서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윤리·투명경영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범법행위를 막기 위해 선정 기업에 대한 지정취소규정도 구체화하기로 하였다.

※ 히든챔피언 :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각 분야의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우량기업. 수출입은행이 2019년까지 20조원을 투입하여 히든챔피언 300개사를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2009년부터 '히든 챔피언 육성사업'을 시작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no=296679&year=2015>

국내 건설회사 임원, 베트남서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국내 건설업체인 A사의 동남아 건설현장 임원 2명이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일부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진행된 자체 감사에서 동남아 사업을 책임지던 상무급 임원 2명이 30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100여억원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하였다. 이들은 베트남 개발 현장에서 하도급업체와 사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지불한 하도급 대금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A사의 전 베트남 법인장 및 현직 임원이 구속되고, 주가는 연이어 하락하며 신저가를 기록하였다.

출처: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all/MD20150226182307272.daum>

주요 대기업 인권 실태 미흡

국가인권위원회가 작성한 '국내 주요 대기업 인권 침해 진정 건수(공기업 제외)'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국내 대기업의 장애인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가 조사한 22개 대기업과 관련해 접수된 인권 침해 진정은 모두 354건으로, 이 가운데 220건(62.1%)이 장애 차별을 이유로 한 진정이었다. 또한, 인권위가 'GRI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가이드라인'의 인권·노동 항목을 바탕으로 국내 19개 대기업의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13곳이 인권침해 현황 파악과 관련한 점검의무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 등 인권 보고 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http://www.ss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583>

:: 해 외

독일에서 '유럽 50대 기업 사외이사의 사회적 관계망' 보고서 발간

독일의 SONEAN사가 유럽 내 기업들의 사외이사과 사내이사·대표이사와의 관계를 분석한 보고서인 "사외이사의 사회적 의존도"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유럽 50대 회사의 상임이사 445명과 비상임이사 476명의 학력, 과거 주요경력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비상임이사 중 사외이사에 해당하는 자는 121명이고, 그 중 55명(45.5%)이 사내이사와의 사회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고, 사외이사의 주된 역할이 이사회 감시를 통한 견제이므로, 사회적 의존도 매커니즘에 해당하지 않는 사외이사 선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http://www.cgs.or.kr/>

에티스피어,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발표

에티스피어 인스티튜트가 '2015년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리스트를 발표했다. 5개 대륙 21개국 50여 산업분야에서 132개 기업이 선정되었는데, 2015년 리스트에는 15개 기업들이 9번이나 수상 기업에 올랐고 11개 기업들이 처음 선정됐으며, Empresa de Desarrollo Urbano라는 콜롬비아의 기업이 사상 처음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수상 기업에는 GE, 구글, H&M, 허쉬 컴퍼니, 펄스코, 싱텔, 레지도어 호텔 그룹 등이 포함돼 있다. 점수는 윤리와 규제 준수 프로그램, 기업 시민권과 책임, 문화와 윤리, 지배, 리더십, 혁신, 평판을 통해 산정됐다.

출처: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11724>

중국, 기업구조 관련법 개정해 IT기업 비상

중국 정부가 기업구조 관련법을 개정하고 있어 외국 IT기업은 물론 현지 IT기업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새 법안의 핵심은 변동지분실체로 불리는 지배구조 하에서도 중국 국적 인사가 경영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ME는 지분 관계가 아닌 용역과 기술, 임대 계약 등을 통해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이다. 새 법안이 통과되면 아마존과 피어슨 등 외국 업체는 물론 시나와 웨이보 등 일부 중국기업들이 현지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거나 지분 일부를 중국인에게 넘겨야 하는 등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고 WSJ는 경고했다.

출처: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111374>



행동
브리프

제1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



공정거래법 준수와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제정된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가 4월 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우택 국회 정부위원장을 비롯하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기업, 학계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정거래 유공자 26명에 대한 정부 포상과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수상도 이뤄졌으며,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 공로로 이우봉 풀무원식품 부사장 등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업종별 사례

이번 호에서는 '의류업계'에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윤리경영 이슈와 그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노력, 그리고 외국기업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이슈 1. 윤리적 패션

현재 의류업계의 트렌드는 패스트 패션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저가·저품질의 옷을 쉽게 사고, 빨리 버리는 소비문화가 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이러한 패스트 패션으로 인해 자원이 낭비되고, 옷의 생산 과정에서 제3세계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고된 노동에 시달리게 되자 이러한 폐해를 인식한 윤리적 소비자가 등장하고, 윤리적 패션이 나타나게 되었다. 윤리적 패션은 친환경 소재 사용과 공정 무역을 추구하며, 버려지는 의류를 새롭게 살려내는 업사이클링을 통해 각광받고 있다.

사례 윤리적 패션이 소비자 발길을 잡는다

국내 의류업체인 A사가 삼청동에 마련한 CSR 매장이 개점된 지 1년도 안되어 누적 방문객이 15만명을 돌파했다. 이곳에서는 A사의 주력 브랜드 기부 상품과 남성 정장으로 만든 스커트, 셔츠로 만든 앞치마 등 신진 디자이너들의 업사이클링 제품을 판매한다. 수익금은 모두 저소득 시각장애 아동의 수술비 지원과 소외계층 장학사업 등에 쓰인다.

A사 관계자는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면서 '쇼핑으로 기부한다'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점이 소비자들의 발길을 잡아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슈 2. 열악한 노동 환경

의류산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구조를 띄고 있기 때문에 노동비용을 줄이는 것이 업체의 이익에 직결되어 왔다.

그 결과 많은 의류생산업체들이 개발도상국에 공장을 두고 아주 저렴한 노동비용만을 지불하며 생산해오거나, 노동착취적인 임금을 지불하는 위탁생산업체를 통해 의류를 생산하고 있다. 이들 생산국가에는 의류업체가 지켜야 할 각종 노동·환경 규제와 단속체계가 잘 갖춰져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류생산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상황에 처해있으며, 아동노동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사례 방글라데시 라나플라자(Rana Plaza) 붕괴 사건

2013년 4월 24일, 방글라데시 사바르에서 베네통, 망고 등 총 27개 글로벌 브랜드 업체에 납품되는 의류가 생산되고 있던 라나플라자 빌딩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1,127명이 사망하고 2,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 며칠 전 건물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등 이상 징후가 발견된 후 모든 입주 노동자들이 대피하였지만 의류 납품 기한을 맞추려는 공장주의 무리한 운영으로 노동자들은 다음날 강제로 일터로 복귀해야만 했다. 하지만 공장이 재가동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전기 진동으로 라나플라자는 한순간에 붕괴됐다.

라나플라자는 무허가 빌딩으로써 2007년 지어질 당시 4층 건물이었지만 더 많은 업체들을 입점 시키기 위해 2012년까지 8층으로 증축 하였으며 붕괴 당시 9층을 추가로 증축하는 중이었다. 이 사고를 계기로 방글라데시 섬유산업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 저임금, 노동권 등에 대한 기업들의 책임경영 논의가 확산되었다.

윤리경영 스터디

'Surveys on Business Ethics 2014'

영국 IBE의 2014년 윤리경영 설문 조사 결과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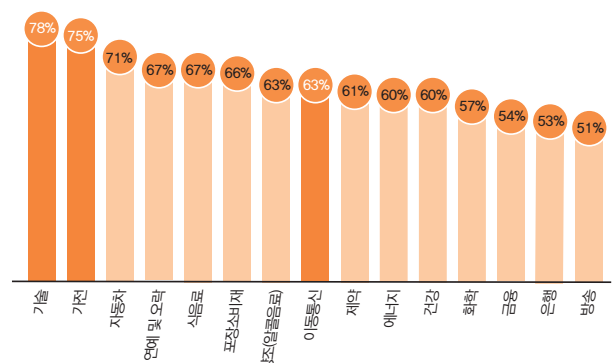
영국의 윤리경영 조사기관인 IBE는 주요 기관들이 2014년 실시한 기업윤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전 세계적으로 하락하였으며, 대부분의 기업들은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갖추었지만 내부고발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에델만 신뢰지수

미국의 PR컨설팅회사인 에델만사는 매년 에델만 신뢰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에델만사가 2014년 27개국 33,000명의 응답자들로부터 4개 부문(기업, 정부기관, 미디어, NGO)의 신뢰도에 대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부문에서 신뢰도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에 대한 신뢰도의 경우 59%에서 57%로 하락함으로써 4개 부문 중 신뢰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조사는 기업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네 가지 항목들로 산업 부문, 기업 형태, 본사 소재 국가 등을 뽑았는데, 기술 분야는 산업별 부문에서 가장 높은 신뢰 수준을 보였으나, 가전 제품, 이동통신업체 분야와 함께 신뢰도 수준이 전년보다는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부문별 신뢰지수



☞ 4면에서 계속됩니다.

글로벌 리포트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에 대하여..

미국 FCPA가 탄생된 결정적 계기는 1975년 '록히드 사건'이다. 미국 상원 금융감시위원회 등이 미국 군수업체 록히드를 조사하던 중 일본 고위 공직자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이 포착되었고, 조사 결과 다나카 가쿠에이 전 일본 총리가 전일본항공(ANA)에 록히드 항공기를 구입 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대가로 마루베니 상사를 통해 5억 엔의 뇌물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당시 금융감시위원장이던 윌리엄 프록스마이어 상원의원은 "록히드 사건이 미국 민주주의의 이미지에 먹칠을 했다"며 해외 부패를 단속하는 FCPA 제정을 추진했고, 1977년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 『뇌물의 역사』 저자인 존 누난은 "역사상 최초로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공직자에게 돈을 주는 행위도 뇌물죄로 단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뇌물단속법'이 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FCPA의 주요 규정

-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금지규정(anti-bribery provision)
- 장부 기입 및 회계를 규제하는 회계규정(accounting provision)

미국 FCPA 주요 규정을 위반할 시에는 막대한 금액의 벌금과 몰수, 징역 등 민·형사적 책임이 뒤따른다. 1998년에는 '국제뇌물금지 및 공정경쟁법'을 제정해 미국 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 기업도 반부패법을 적용받고 제3국에 뇌물을 제공한 외국 기업의 미국 진출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2010년 법의 집행 주체인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가 반부패팀을 출범시켜 다수의 기업들에게 위의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징수하기 시작하면서 제정된 지 30년도 넘은 이 법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FCPA 규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특징 중 하나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법무부의 조건부 기소 처분 또는 기소 유예 약정으로 종결된다는 점이다. 이 처분들은 거액의 벌금 부과 외에 향후 FCPA 위반 행위를 방지·적발할 수 있도록 외부 모니터링을 받거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가 FCPA 위반 사안의 처분시 고려하는 사항은 대상 기업이 사전에 FCPA 위반 행위를 방지·적발하는데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는지, 그 프로그램을 실제 효과적으로 운용해 왔는지도다. 자사의 기업활동과 시장환경에 맞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집행하여 실제로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를 수행해 왔다는 것으로 보인다면 조건 없는 불기소도 가능한 것이다.

해외기업 적용 사례

독일기업인 A사는 2000년대 초반 중국과 러시아, 이라크 등 외국 정부 관계자에게 4,238회에 걸쳐 총 14억 달러의 뇌물을 제공했다. 미국 정부는 A사가 미국 영토 내에서 사업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주식예탁증서(ADR) 발행을 통해 주식이 거래된다는 점을 이유로 FCPA를 적용하여 이 기업에 8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 3면에서 이어집니다.

기업 내부고발제도 미비 [Freshfiel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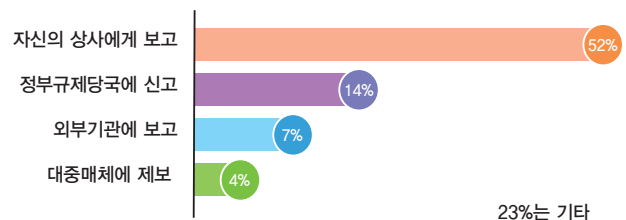
다국적 로펌회사 Freshfields가 2014년 전 세계 2,500명의 경영진들과 중간급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내부고발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기업들이 내부고발제도를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직 응답자의 6.5%만이 내부고발제도가 현재 기업의 중요사항이라고 하였고, 기업에서 내부고발제도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응답자들도 8.6%이며, 소속기업이 내부고발행위를 방해한다고 한 응답자도 30%에 육박했다.

내부고발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한 응답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내부고발제도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대략 20% 응답자가 소속기업의 내부고발제도가 잘 공표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고, 내부고발제도가 보완·검토 된 적이 없다는 응답도 10%가 넘었다. 국가 간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홍콩은 27.9%의 응답자가 내부고발 경험이 있지만, 영국은 단지 6.2%에 불과했다.

사내 문제 발생 시 보고하는 방법으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상사에게 직접 보고할 것이라고 하였고, 정부나 외부기관에 신고하겠다는 답변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21.5%는 기업이 내부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내 문제 발생시 보고 방법



기업윤리 브리프스
Monthly Business Ethics Briefs



One Point Lesson

Q 윤리경영이나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들이 과연 경영성과도 좋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일반적으로 기업들의 윤리경영 및 지속가능경영과 기업의 재무적 성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2011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10년까지 18년간 180개 기업의 성과를 추적한 결과 가치주 총액을 1달러로 보았을 때, 사회·환경적 정책을 채택한 기업 90개는 22.5달러까지 증가한 반면 그렇지 않은 기업은 15.4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S&P500의 기업 중 469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른 조건들이 동일할 때, 기업의 윤리경영지표와 기업의 총자산이익율(ROA) 및 자기자본이익율(ROE)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의 조사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표준협회(KSA)의 지속가능성지수(KSI) 평가 대상 60개 기업의 5년간 경영실적을 조사한 결과, KSI가 높을수록 직접적인 수익의 증가를 보여주는 ROA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요컨대, 기업이 윤리경영 및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종업원들의 작업능률이 향상되어 생산품의 품질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 개선, 고객 충성도 향상, 판매량 증가에 따른 수익증가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KSI(대한민국 지속가능성지수, Korean Sustainability Index) : 한국표준협회가 ISO26000을 기반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수준을 조사하기 위해 개발한 지수. 지속가능성 트렌드에 대한 기업의 대응 여부와 지속가능성 영향에 대한 기업의 관리 및 개선 여부를 직접 조사하는 모델로 환경, 여성, 인권,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으로 구성

5월

국내외 행사를 소개합니다!

Korea Leaders Summit 2015

UNGC가 추구하는 반부패 등 4대 가치 확산과 기업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를 소개하고 권익위, 통일부, 환경부, 인권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분과 세션이 운영될 예정,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비롯한 기업,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

- 주 최 : UN Global Compact 한국협회
- 일 시 : 2015년 5월 19일(화)
- 장 소 : 여의도 콘래드 호텔
- ※ 참가문의 : 02-749-2149, 044-200-7167

[경영컨서트] 글로벌 컨설팅사가 제안하는 한국기업의 성장전략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와 노무라의 최고 전문가를 초청, 한국경제와 기업의 성장전략을 알아보는 자리가 될 것이며, 경영, 인문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정보를 제공할 예정

- 주 최 : 대한상공회의소, 동아일보
- 일 시 : 2015년 5월 12일(화)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회관 국제회의장(지하2층, 남대문로 소재)

Responsible Business Summit Asia 2015

경영전문가, 혁신가들이 어떻게 지속가능경영과 CSR 경영 전략을 발전시키고 수립하는지에 대해 강연하고, 참가자들의 경험을 나누는 자리가 될 예정

- 주 최 : Ethical Corporation
- 일 시 : 2015년 5월 6일(수)~7일(목)
- 장 소 : Novotel Clarke Quay, Singapore

2015 Shared Value Leadership Summit

공유가치 분야를 선도하는 전문가들이 기업에 최적화된 공유가치전략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 강의하고 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사회적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

- 주 최 : Shared Value Initiative
- 일 시 : 2015년 5월 12일(월)~13일(수)
- 장 소 : Conrad New York

윤리경영퀴즈

1975년 '록히드 사건'을 계기로 탄생하게 되었고,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국제 반부패라운드 형성의 초석이 된 미국의 법은 무엇일까요?

- 1) 해외부패방지법(FCPA)
- 2)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
- 3) 연방판결지침(FSG)
- 4) 사베인스-옥슬리 법(SOX)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 5명을 추첨하여 커피 모바일 상품권(2매)을 보내드립니다.

● 지난호 정답 : 2번, ISO9000

● 정답 제출처(25일 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장준용(gukmin@korea.kr)

※ 정답과 함께 성함, 주소, 핸드폰 번호(모바일 상품권 수신)를 적어 보내주시시오(24일까지).

● 지난 호 퀴즈 정답자는 이재훈님, 최지희님, 강기민님, 박성균님, 전경욱님입니다.

※ 보내주신 주소로 상품권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즐거운 윤리



영재선배님!
나랏일에 고생 많으십니다.
몸보신 좀 하시라고 삼백 넣었습니다.



수락아!
공직자는 이런 돈 받으면 안된다.
니 마음만 고맙게 받을게

저랑 선배님 직주는 관련도 없고,
특별히 부탁하는 일도 없으니까
받으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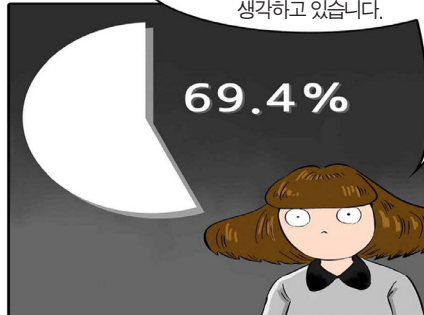


고맙다. 앞으로 살다가 힘든 일
있으면 말해라.
내 워든지 도와줄게.

에휴... 공직자분이 이러시면
이제는 큰일나죠



최근 반발하는 공직자의
부패, 비리 사건으로
국민의 69.4%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직자가 금품을 받아도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밝혀지지 않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도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직무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백만원, 연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경우에는 처벌하는 방안을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015년 3월 3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 덕분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부정청탁 금지법의 조기 정착에
만전의 준비를 다하여



반듯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새로운책 소개



NEW CSR

- 개인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저 자: 김성택

출 판: 청람

출판일: 2015. 2. 28

정 가: 28,000원



소프트 엣지

- 위대한 기업의 비밀

저 자: 리치 칼가이드

출 판: 코리아닷컴

출판일: 2015. 3. 2

정 가: 13,800원



- 본 월간지의 저작권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습니다.